

2022년 8월 7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마가복음 16:19-20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So then the Lord Jesus, after he had spoken to them, was taken up into heaven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they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while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confirmed the message by accompanying signs.

족장부터 출애굽까지 From Fathers to Exodus
사도행전 Acts 13:14-17

14.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But they went on from Perga and came to Antioch in Pisidia. And on the Sabbath day they went into the synagogue and sat down.

15.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After the reading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the rulers of the synagogue sent a message to them, saying, “Brothers, if you have any word of encouragement for the people, say it.”

16.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So Paul stood up, and motioning with his hand said: “Men of Israel and you who fear God, listen.

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The God of this people Israel chose our fathers and made the people great during their stay in the land of Egypt, and with uplifted arm he led them out of it.

오늘은 전면적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나와 아내가 지난 수요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목요일 1박2일로 예정되었던 “후파 선교”도 연기됩니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 만난 그 가족이 “후파 족장 가족”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후파선교를 아예 못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이미” 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 주일 당겨서.

밤빌리아의 버가(Perga in Pamphylia)에서 마가요한(John Mark)이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지난 주 설교 때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제 둘만 남은 이들 선교여행 팀은 버가(Perga)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선교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Antioch in Pisidia)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일행은 거기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장들의 초청을 받고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주제는 “족장들로부터 출애굽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과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심입니다. “부르심과 구원하심,”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행한 많은 설교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첫 설교를 전합니다.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설교는 앞으로 실시하는 모든 설교들 중에 한결같이 일관하는 주제를 품었습니다.

14.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But they went on from Perga and came to Antioch in Pisidia. And on the Sabbath day they went into the synagogue and sat down.

버가(Perga)에서 더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가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이유였을까요? 버가에서 어떤 “선교사역”을 실시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미루어 마가요한이 떠난 것이 바울 일행에게 어떤 타격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선교의 발걸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므로, 성령님께서 버가가 아닌 다른 곳을 지목하셨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they came to Antioch in Pishida)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에(province of Galatia) 자리 잡은 중요한 도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province of Galatia)은 갈라디아 왕국이었던 것이 주전 25년에 아우구스투스(Augustus)가 로마제국에 편입시켜서 생겼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인근 지역과 교통이 밀접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교회가 서면 효과적인 복음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중요한 대도시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선교사역을 계속했다는 것은 이미 정설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로마가도”(Via Rome)를 사용하여 행진했고,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거점 삼아 말씀을 증거 했습니다.

로마는 372개의 도로가 있었고, 113개 속주(Provincia, 프로빈키아)를 두었습니다. 갈라디아는 그 113개 속주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에 속하는 계급인 “총독”이 파송되어 다스렸습니다.

그 113개 속주 중 하나가 “키프로스”(Cyprus)입니다. 키프로스 섬은 주전 27년에 “길리기아”(Cilicia)로부터 분리되어 로마의 별개속주가 되었습니다. 둘째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입니다. 주전 25년에 속주로 설치되었습니다. 다른 하나가 “유대”입니다. 유대 속주는 주후 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첫 번째 총독은 코포니우스(Coponius, 6-9)였습니다. 참고로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는 26-36년 기간에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버가(Perga)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을 추적해 보니, 그것은 “주요 로마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고지대를 올라야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처음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던 기억을 적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You know it was because of a bodily ailment that I preached the gospel to you at first.

갈라디아서 Galatians 4:13

어떤 학자들은 이 처음 여정에서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도시입니다. 밤빌리아 지방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정북쪽인데, 그 거리는 상당합니다. 119 miles (193.8km)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2시간 50분 걸립니다.

당시는 타우루스 산맥(Taurus Mountains)을 통과해야 합니다. 평균 해발 3,608 feet (1,100m), 최고봉은 10,826 feet (3,300m)나 됩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강도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 4:13의 배경이 처음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할 때의 사정이라면, 바울은 이 여행 중에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버가에서 더 나아가” 라고 짧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안팎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계속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에(on the Sabbath day)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날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they came into the synagogue)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장소 회당(synagogue)에서 복음을 증거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 구역(Jewish colony)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회당(synagogue)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두 가지가 “유대교적” 정황입니다.

첫째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시간”(time)입니다. 모든 삶은 영적인 생활에 집중합니다.

둘째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장소”(place)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은, “유대인의 구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용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빛진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 one who believes, to the Jews first and also to the Greek.

로마서 Romans 1:16

이처럼 가는 곳마다 우선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 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선교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각 지역의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은 그의 “선교 초기”에 해당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이미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And Paul and Barnabas spoke out boldly, saying, “It was necessary that the word of God be spoken first to you. Since you thrust it aside and judge yourselves unworthy of eternal life, behold, we are turning to the Gentiles!”

사도행전 Acts 13:46

2차 선교여행 중반부,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또 다시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And when they opposed and reviled him, he shook out his garments and said to them, “Your blood be on you own heads! I am innocent. From now on I will go to the Gentiles!”

사도행전 Acts 18:6

그러나 동쪽 유대인 구원이라는 주제는 그의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에서 제3차 선교여행 할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9-11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accursed and cut off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brothers, my kinsmen according to the flesh.

로마서 Romans 9:3

15.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After the reading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the rulers of the synagogue sent a message to them, saying, “Brothers, if you have any word of encouragement for the people, say it.”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것은 모세오경(Pentateuch)과 선지자의 글(여호수아-열왕기하, 이사야-말라기)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전체”를 대표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그 모든 범위를 다 읽었을 리가 없겠습니다. 성경 중 일부를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회당장들이 초청

이번 선교여행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성경학자도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교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고려된 것일까요? 아직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유대교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보십시오.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생소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처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백성을 권할 말(word of exhortation)이 있거든

여기 “권할 말”(로고스 테스 파라클레세오스)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용어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회당장들이 요청한 그것에 소위 그 설교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말하라!

범위를 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증거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어찌면 이것은 “유대인이면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으며, 증거 할 수 있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6.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So Paul stood up, and motioning with his hand said: “Men of Israel and you who fear God, listen.

바울이

바나바와 동행 중이지만, 바울이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당시 설교하는 자들의 보편적인 자세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교자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손짓하며 말하되

손짓은,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증거 하는지 보여주는 근거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바울은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깊은 속 사정이 있었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그토록 갈망하던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9-11장에 진지한 그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들으라!

선교사/설교자 바울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The God of this people Israel chose our fathers and made the people great during their stay in the land of Egypt, and with uplifted arm he led them out of it.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는 방금 읽은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로마 당시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우상이며 거짓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신 하나님을 뵈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언제나 예외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가장 뚜렷한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스스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역사했습니다. 민족적 자부심. 이런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것 말고 달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요셉으로부터 시작한 애굽 이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억압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높여

애굽 땅에서는 “종들”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When Israel was a child, I loved him, and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호세아 Hosea 11:1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온 사실에서 최종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즉 출애굽이 깔려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 “큰 권능”은 열 가지 재앙입니다. 그 중에도 열 번째 재앙, 곧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그 피의 은혜로써 구원 받은 사건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홍해바다를 갈라내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은 사건과 아울러 이스라엘이 “집단으로 세례 받은 사건”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은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역사에 임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And all were baptized into Moses in the cloud and in the sea.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0:2

이 말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지 육신적인 상태를 해방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들을 우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그 말씀을 “잘못” 깨달아, 오히려 메시아/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제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큰 도구가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랬던 그대로!

말씀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보다는 그래도 말씀을 배우고 안 유대인들이 일차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는 우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교도 “동시에” 실시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여부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F. F. Bruce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Men of Israel and you who fear God!
사도행전 Acts 13:16b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거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계속 연구가 필요한 일이지만, 당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회당들은 상당히 타민족들에게 “개방적”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쩌면 “헬라화” 된 회당들도 상당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선교에서 보다 도움을 준 무리들은 이들 “후자들”입니다. 이방인들로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쌍방향” 선교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평생 말씀을 배워 하는 기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사역”과, 전혀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선교사역”은 “동시적인 사역”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John 3:16

이 복음은 “세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곧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그가 소아시아 대륙에서 행한 첫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첫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이 거룩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르심과 구원 사이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에 이르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과 구원은 “한꺼번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요한이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겨우 선교의 초창기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험난한 산맥을 가로질러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 새로운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 회당장들이 그들을 설교에 초청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죽음의 길에서 불러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길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